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2면

한미FTA 저지 운동의 방향

3면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점거 투쟁

8면

크리스 나인햄이 말하는

‘세계 반전 · 반자본주의 운동의 전략’

4~5면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4~6면

6호 2006년 7월 22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제5차 중동전쟁 부를 레바논 공습을 이스라엘은 중단하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포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그 곳에 사는 팔레스타인인 1백 40만 명의 상황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이번 포위 공격은 6월 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의 상병 한 명을 납치한 뒤 시작됐다. 이스라엘은 교량을 폭파하고, 가자지구와 다른 지역을 잇는 도로를 차단하고, 가자지구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는 발전소를 파괴하고, 국경을 봉쇄했다.

6월 28일에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85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됐다.

자발리아 난민촌 알-아우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모나 엘 파라는 이렇게 말했다.

“월요일에 이스라엘은 가자시티에 있는 외무부 건물을 폭파했다. 정말 엄청난 폭격이었다.

“내 친구들이 바로 옆 블록에 사는데, 다른 정부 청사들이 그 곳에 있다 보니 다음에는 자기들이 사는 블록이 폭격당할까 봐 겁에 질려 있다.

“가자지구 북쪽의 베이트 하누 마을에서의 군사 작전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탱크와 불도저들이 농토를 갈아엎고 있다. 사람들이 전기도 물도 끊긴 상태에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 이스라엘 병사들은 마을에 있던 기자 다섯 명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

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지금 이스라엘은 두 전선, 즉 가자와 레바논에서 싸우고 있고, 양쪽 어느 곳에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가자는 엄청난 곤경에 처해 있다. 물과 전기는 끊겼다. 청소차를 운행할 연료가 부족해 도처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사람들이 이를 치우고 있다.

“이것은 건강에 대단히 해롭다. 아이들은 잠을 못 이룬 채 불안에 떨고 있다. 나는 정서적으로 매우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지만 계속 일해야만 한다. 상황이 아주 나쁘다.

“병원은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들어오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번주 화요일에 이집트 쪽 국경이 개방될 예정이었지만 국경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팔레스타인 무장 대원들은 지난 토요일 국경을 개방하도록 만들었고 덕분에 수백 명이 가자지구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이스라엘 헬리콥터는 이들에게 총질을 해댔다.”

다음 호(7호)는 노동자들의 여름 휴가 때문에 8월 둘째 주에 발행됩니다.
긴급한 쟁점은 인터넷판에 실릴 예정입니다.

I 중동

확전은 저항을 부를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오늘날 레바논·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제국의 힘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에 들었다. 언뜻 봤을 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군사력은 압도적이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사회기반시설과 레바논인들의 연약한 신체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적인가는 다른 문제다.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올메르트¹는 전 총리 아리엘 샤론이 갔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 1982년 샤론은 레바논이 이스라엘 공격 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레바논을 침략했다.

그 결과 레바논인들이 끔직한 죽음과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방위군도 수모를 당했다. 헤즈볼라의 끈질긴 게릴라 공격 때문에 남부로 후퇴를 거듭하던 이스라엘은 2000년에는 결국 레바논에서 철수해야 했다.

올메르트는 똑같은 재난을 피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자제하고 주로 공군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헤즈볼라에게 얼마나 실질적 타격을 입힐지는 의문이다. 헤즈볼라도 강력하게 반격할 능력이 있다.

헤즈볼라의 미사일들이 하이파를 타격하고 이스라엘 군함을 침몰시킨 것이 다가 아니다. 로버트 피스크는 7월 16일치 〈인디펜던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스라엘 북부 미론의 비밀 군 관측소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아마 그 미사일들은 이란이 제공한 것일 것이다. 2004년 10월에 미국 기자 마크 가프니는 이란 정부가 함정공격용 순항미사일의 제조를 러시아에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해군은 그것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나는 헤즈볼라의 ‘공격’(2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을 사로잡은)이 이란과의 협의 하에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흐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반이스라엘 발언이 서구 자유주의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지만 아랍 세계에서는 열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헤즈볼라 지도부도 자체의 목표가 있다. 하지만 이란 정부로서는 새로운 레바논 전쟁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은 커다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국 정부에게 보낼 수 있는 기회이다. 한편, 지난주에 급진적 시아파 지도자인 무크타다 알사드르²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는 동안 “팔짱끼고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지 W 부시는 헤즈볼라를 성토할 수

있지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이 묶여 있다. 이라크 서부 라마디에 관한 〈뉴욕 타임스〉의 보도는 마치 영화 ‘아파치 요새’를 묘사한 것 같다.

아파치 요새

미국 해병대들은 냄새나고 더럽고 비좁은 정부 청사 건물에 갇혀 살고 있다. 게릴라들이 수백 명씩 해병대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점령군들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본 끝에 도심 지역을 소개하고 바그다드의 그린존을 본떠 라마디 그린존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도 비슷하다. 소위 ‘재건’을 돕기 위해 파병됐다는 영국군들(바보들만이 공수부대가 재건 활동을 한다고 믿겠지만)은 선전 목적으로 탈레반이라

고 왜곡해서 부르는 저항세력에 대한 미군 주도 공격에 참가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에 미국·영국·캐나다 군대가 게릴라에 대한 군사작전을 벌였지만, 게릴라들이 대부분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캐나다 군 대변인은 탈레반들과 싸우는 것이 “손으로 파리를 잡는 것과 비슷하다”고 불평했다.

지금 영국군은 옛날 언덕요새 부지(아마 1840년대와 1880년대 그들의 선조들이 실패한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 사용한 것들일 것이다)에 숨어 있다.

미국 정부의 ‘장기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군사력을 지나치게 확장했던 과거 제국들의 사례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2001년 9·11 이후 부시 정부는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해 적을 파괴하는 능력을 보여 주고 싶어했다. 하지만 결국 부시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저항을 불렀을 뿐이다.

물론 현재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만약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효과적이지 못하면(아마 그럴 듯하다), 올메르트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지원한다고 의심하는 시리아나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다.

부시 정부는 그렇게 상황이 변하는 것을 찬성할 수도 있다. 최근에 월리엄 크리스톨과 리처드 펄 같은 네오콘들은 부시와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북한과 이란에 대해 ‘유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파의 압력을 받아 부시 정부는 확전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런 정책이 사악하고 파괴적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제국의 힘의 행사는 또한 분쇄할 수 없는 저항을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 글은 유대인이자 사회주의자인 존 로즈의 글을 축약한 것이다. 전문은 인터넷 웹사이트(www.counterfire.or.kr)를 보시오.

팔레스타인의 시온주의 정착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서방 열강의 지원이 필요했다.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 제국의 전시 내각 전체가 시온주의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명예롭게도 유대인 한 명은 반대했다.) 로이드 조지, 처칠, 벨푸어는 영국 제국을 위해 ‘성지’ 팔레스타인을 확보하는 수단이 바로 시온주의 정착촌의 확장이라고 보았다. 여기에는 십자군 전쟁의 ‘전리품’ 같은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랍 세계의 한 복판에 존재하는 영국계 시온주의 식민지가 일종의 군사요새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군사요새는 서쪽으로는 수에즈운하를 확실히 지배하고 [동쪽으로는] 영국령 메소포타미아(나중에 이라크로 이름이 바뀐)에서 생산되는 석유 공급을 확실히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영국을 대신해 미국이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의 후원자가 됐다. 닉슨 정부 이후의 역대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대리인’ 또는 ‘전략적 자산’으로 여겼다. 이스라엘을 이용해, 아랍 세계가 항구적인 공포와 굴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

21세기에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이데올로기에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 추가됐다.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중동 정책의 핵심인 ‘신보수주의’(네오콘) 전략은 중동 전체를 미국의 이익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말이다. 특히, 이슬람주의 정권들과 이슬람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을 뿌리뽑아야 한다. 폭격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고, 중동 각국 국민의 민주적 의사와 무관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이스라엘 승인을 철회하라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선출과 위임을 받은 하마스 정부를 미국·영국·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했다.

그러나 이 점을 먼저 인식하면, 정말로

끔찍하고 점차 격화하는 지금의 충돌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을 쉽게 알 수 있다. 7월 16일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 텔아비브에서는 유대인과 아랍인 2천 명이 참가한 평화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 시위의 주요 구호는 “포로 교환 찬성한다!”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했다. 당장 일시적 휴전이 선언되고, 붙잡힌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재소자들과 교환돼야 한다. 이 냉각기를 이용해, 이스라엘이 민주적으로 위임받은 하마스 정부를 인정하라고 이스라엘에 강력한 압력을 넣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핵심 요구 세 가지는 — 모두 유엔 결의안에 근거하고 있고, 국제법에 따라 인정된다 — 중동의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

*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지방과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 — 국경선과 영공을 개방할 것

* 예루살렘을 대등하게 나누는 데 동의할 것

* 1948년 이스라엘 국가 건설 당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귀환권을 인정할 것

이스라엘은 이런 요구들을 수용하면 유대인들의 국가라는 시온주의 구조가 해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시온주의 국가와 팔레스타인 해방은 양립할 수 없다. 시온주의는 아랍인들을 희생시켜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온주의 국가 구조의 해체만이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평화·평등·조화를 바탕으로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의 소책자들을 읽어 보시오



강탈국가, 이스라엘

존 로즈 지음
2,000원



이스라엘, 제국주의, 팔레스타인 항쟁

앤 알렉산더 지음
1,200원

한미FTA 저지 운동의 확대를 위해

김인식

7월 12일 한미FTA 저지 시위는 성공적이었다. 노동자·농민·NGO·청년·학생 등 5만 명이 참가했다. 이 시위 직전의 각종 여론 조사에서 한미FTA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7월 12일 집회는 이런 대중 정서의 초점 구실을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협상 기간 내내 협상장 밖 여론과 운동을 의식했다. 일부 좌파들은 7월 12일 시위의 가치를 애써 부정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 운동은 이번 시위의 성공을 기뻐할 자격이 있다. 무엇보다 우리 운동이 FTA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은 다음 투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물론 한미FTA 협상이 결정적으로 파산한 것은 아니다. 2차 협상 종료 직후 노무현은 한미FTA가 “소신과 양심을 갖고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소신과 양심”은 한국 지배자들 다수의 “소신과 양심”이기도 하다. 한국 지배자들 다수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5단체장들도 한미FTA 협상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한미FTA 문제를 국익의 용어로 다룬다면 지배자들에 효과적으로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아쉽게도, 7월 12일 시위 때 한미FTA가 “국익이 아니라 국치”이고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한미FTA가 국가 기능의 일부— 국가의 시장 규제 폐지(또는

완화), 노동기본권 축소, 환경 규제 폐지 등 — 를 제거하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미국 자본가만이 아니라 한국 자본가도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미FTA가 한국의 이익을 미국에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한국 자본가들은 종종 미국의 이해관계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운동이 이용할 수 있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다.

베네수엘라가 그랬다. 2002년 4월 쿠데타는 그 나라 토착 자본가와 장군들이 시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처음에 쿠데타를 원하지 않았다. 토착 자본가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제서야 미국은 쿠데타를 지지했다. 2003년 초 사장들의 파업 때도 미국은 이라크 전쟁 준비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공급을 폐쇄하

고 싶어하지 않았다.

바로 이 과정에서 대중의 거대한 급진화가 일어났다.

대중성과 급진성

한편, 한미FTA 반대 논거가 한국 자본주의의 이해득실이나 산업별 득실에 맞춰지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한미FTA 체결이 반드시 한국 경제의 후퇴를 낳을지 반대로 성장을 낳을지는 알 수가 없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한미FTA가 아니라 세계 경제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많은 우려와 비판적 전망 속에 2001년에 WTO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고 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지표가 상향곡선을 그릴 때조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노동자·민중의 삶은 나아지기는커

녕 악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생활수준 전반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산업별 피해를 강조하는 논리도 위험하다. 한미FTA는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마다 다른 손익 효과를 내는 데다, 산업 피해를 강조하게 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주의 손실을 걱정하게 된다. 이것이 7월 13일 MBC <100분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빠진 함정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민중이 겪게 될 피해가 부차적 문제가 돼 버렸다.

산업별 이해득실론은 또, 노동자들의 산업별 부문주의를 조장함으로써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을 방해하게 된다. 한미FTA는 의약품 인상, 건강보험 후퇴, 공공서비스(전기, 가스, 물 등)의 사기업화 등을 강요하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 전체와 가난한 사람들 모

두에 해당하는 문제다. 한미FTA 저지 운동이 쌀과 영화의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 까닭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미FTA가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싶어한다. 우리는 거리에서 <맞불>을 판매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

운동을 더 넓고 더 깊게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2005년 프랑스 운동이 거둔 유럽헌법 국민투표 반대 운동의 승리 배경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건설된 1천여 개에 이르는 조직들이 있었다. 이를 통해 프랑스 전역을 유럽헌법 논쟁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한미FTA에 대한 원칙적 반대론자와 신증론자의 연합은 분명 운동의 대중성 확대에 긍정적 구실을 하고 있다. 한미FTA 저지 운동은 정태인 씨 같은 일부 신증론자들에게 적잖은 빛을 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노무현은 우리 운동에게 “대안 없는 반대”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하고 있다. 반대론자와 신증론자의 연합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가 되겠지만 우리 운동은 대중성과 급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새로 나왔습니다

한미FTA에 맞선 투쟁과 대안



이정구 외 지음
3,000원

5만 명이 한미FTA 반대를 외치다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한미FTA 2차 분협상 반대 시위에 5만 명이 참가했다. 이 시위는 미조직 청년들에게서도 지지를 받았다. 한미FTA 범국민에 집회 자원봉사자 신청이 쇄도했다.

시장화에 저항하는 농민들, 하루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 대학생들, 급진좌파, 환경단체, 여성단체, NGO 등 다양한 세력이 한미FTA 반대 행동으로 단결했다. 공동전선이 운동을 확대하고 조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술임을 보여 줬다.

시청 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

까지 행진한 시위 대열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세종로 한복판으로 진출했고, 미 대사관 앞에서 정리 집회를 마쳤다.

이 날 집회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아쉬움도 남는다. 바로 한미FTA 반대 투쟁의 대안과 정치 문제다. 우선, 범국민은 범국민대회를 정치집회로 조직하지 않았다. 다양한 정치 세력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어야 운동이 더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 정치의 공백은 다양한 방식

으로 민족주의적 내용으로 채워졌다.

예컨대, 투쟁 결의문의 내용이 그랬고, 미 대사관 앞 정리집회에서는 사회자가 “양키 고 홈” 등 조야한 반미국인 구호를 계속 외쳤다. 한미FTA에 맞선 대안은 국제주의적이고 계급투쟁적인 한미노동자·민중의 연대가 돼야 한다.

집회 조직 과정에서도 논쟁이 있었다. 나는 공공서비스, 교육, 의료 등에 관한 정치 연설 등을 배치해 정치 집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요 조직자들은 반대했다.

오히려 이들은 14개 부문 공대위가 연

단에 올라가 1분 정도의 짧은 글을 낭독하는 것으로 정치연설을 대체했다. 부문 공대위 대표들이 낭독할 글을 각 부문 공대위에서 범국민으로 보내고 범국민이 최종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요컨대, 주축측이 낭독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옳바르지 않다. 공동전선 내에서는 행동 통일을 하면서도 선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다른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행동을 함께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추진하려는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범국민대회의 유일한 정치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투쟁 결의문에 민족주의 색채가 짙었던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김광일

활력이 넘쳐난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성황리에 끝났다. 174개 단체가 행사를 후원했다. 참가 등록자가 1천4백 명이 넘었고, 각 워크숍 참가자를 모두 더한 수인 연인원은 8천 명이 넘었다. 나흘 동안 120명의 자원봉사자가 행사 조직을 훌륭히 해냈다.

급진적인 사상의 토론과 논쟁의 장을 방해한 고려대학교 당국의 불허 방침과 경희대학교 당국의 방해 때문에 행사장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매우 산전 전후였다.

경희대학교 당국은 냉방과 음향 시설을 지원하지 않아 자체 냉방시설과 음향 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조직자들의 대답하고 노련한 조직과 함께 노동자들의 지원이 중요했다. 대학노조 한국의국어대 지부 노조원들의 도움으로 외대 강연장과 외대 학생식당을 이용할 수 있었고, 지하철역과 토론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는 민주노동당의 버스와 한 민주노동당원이 지원한 소형버스로 운행할 수 있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과 실무 조직 덕분에 많은 참가자들은 별다른 불편함 없이 토론과 논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특히 행사 내내 2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편

안하고 즐겁게 뛰어 놀았던 놀이방 덕분에 여성 활동가들이 토론에 마음놓고 참가할 수 있었다.

대학생, 청소년, 환경운동가, 종교인, 민주노총 활동가들, 파업 노동자, 이주노동자, 전교조와 공무원 노동자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고, 특히 많은 민주노동당원들의 참가가 눈에 띄었다. 민주노동당과 한국 좌파 운동의 미래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총 60개의 주제로 토론이 있었는데, 워크숍마다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발언 신청자가 넘쳐서 청중 토론의 시간이 모자라 발언자들을 제한해야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특히 한미FTA 관련 주제들에 대한 워크숍이 관심을 끌었고, 실천적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과 반전 운동의 결합에 관한 주장들이 많았다. 국제 반전 운동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주요 조직자 크리스 나인햄도 이 점을 강조했다.

더 깊어지고 더 활발해진 토론과 논쟁은 한국 반전·반자본주의 운동과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의 밝은 미래를 힘껏 보여 줬다고 할 수 있다.

김광일

연사들이 말하는 “전쟁과 혁명의 시대”



박노자(《당신들의 대한민국》 저자)

제가 민족국가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বলে 왔는데요, 청중들과 소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민족주의 좌파가 강하고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한테도 청중들이 제 발언제를 듣고 나름으로 자신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미FTA 문제에서도 국내 지배자들에 맞서야 한다는 것과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미FTA는 완전히 침몰시켜야 합니다. 한미FTA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사회 전체에 일반화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정취해 왔던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미FTA를 침몰시키는 과정에서 노무현과 열우당 중간파도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침몰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는데, 설령 그들이 집권해서 운동이 탄압받고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전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치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영규(민주노총 부위원장)

북미자유무역협정, 한국 말로는 ‘나쁘다(NAFTA)협정’ 체결 이후 멕시코의 빈부격차는 늘어났습니다. FTA는 부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줬지만 민

중의 삶은 나날이 파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다가 중단하거나 파기한 나라들이 34개나 됩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FTA를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한미FTA 반대 투쟁은 한국에서 반자본주의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금속산업노조가 출범한 올해 이런 투쟁이 시작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전쟁과 혁명의 시대”의 한미FTA 토론이 그런 투쟁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선동(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강의실을 가득 메운 청중이 놀라웠고, 토론에 집중하는 열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청중의 수준도 높았습니다. 이런 행사가 앞으로 더 많이 자주 열리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 제약 때문에 주장을 충분히 펴고 쟁점들을 명확히 토론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김종철(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우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굉장한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가해 놀랐습니다. 또한 열정적인 토론 참여도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

어서 대중적인 좌파 운동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반전 운동은 점령군 철군을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전쟁저지연합과 세계사회포럼 조직자인 크리스 나인햄이 연설한 ‘세계 반전·반자본주의 운동의 전략’ 워크숍에는 5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아래는 이 날 연설을 요약한 것이다. 연설 전문은 <맛볼> 인터넷판에 올릴 예정이다.

“우리는 결코 1999년 시애틀 시위 이후 등장한 운동의 성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조지 부시를 보십시오, 토니 블레어를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승리한 제국주의자들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때때로 신경쇠약 직전의 환자로 보입니다.

“또,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정부를 무너뜨린 대규모 대중 항쟁이 여섯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는 가장 멀리 나아간 사례이지만, 다른 곳에서도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다양한 운동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에 있던 한미FTA 반대 시위처럼 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행동에 함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유럽 자본가들이 사유화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도였던 유럽연합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운동들의 신자유주의의 일반도이던 이데올로기 지형을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이다’ 등의 구호가 유명해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켰습니다.”

“현재의 반전 운동은 역사상 존재한 제국주의 반대 운동 중 가장 거대한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반전 운동은 이미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반전 운동이 없었더라면 조지 부시는 이미 이란을 침공했을 것입니다. 이라크에서 더 많은 이라크인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또, 부시와 블레어의 국내 위기도 없을 것입니다.”

성취

“하지만 동시에 운동 내의 논쟁과 문제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999년 시애틀 직후 우리 운동 내에서는 모든 종류의 정치와 조직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에 대한 반감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는 거대한 대중 투쟁이 일어났고, 좌파와 우파 모두 혁명 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다른 세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쳤습니다. 운동 안에 자율성과 지역성에 대한 강조와 모든 종류의 중앙집중적 조직과 행동을 거부하는 경향이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



국 아르헨티나를 “정상적 자본주의”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한 재현 대통령 키크치네르]가 정치적 공백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운동의 일부를 흡수하고 다른 일부를 공격하면서 운동을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 환경과 마찬가지로 정치에서도 진공 상태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운동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개량주의 정치가 정치적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운동이 가장 강력하던 이탈리아에서도 주요 좌파 정당인 재건공산당[리포르타찌오네 코무니스타]은 최근 사회자유주의[제3의 길] 연립정부를 지지하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런 예들은 반자본주의적 정치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함을 증명하는 사례들입니다.

“브라질에서도 강력한 운동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사회자유주의 정당인 룰라의 당이 높은 득표율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는 대안을 제시하는 구실을 해야 합니다. 역사상 정치인들이 선전하는 것과 보통 사람들이 믿는 것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큰 적이 없었습니다.

문에 부시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것 일체를 대표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직후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카슈미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고,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네오콘과 전쟁광들이 집중하고 있는 곳은 중동입니다.

중동

“지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연대를 보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가 중동에서 하고 있는 구실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테러와의 전쟁’이 만든 이슬람 혐오 정서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 반전 운동은 계속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점령군의 철군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 그곳은 부시와 그 지지자들의 급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라크 점령이 군사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일 뿐 아니라,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부시와 블레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라크인들을 다른 이라크인들한테서 보호하기 위해 점령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내전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책임입니다.

“철군 논의는 단지 반전 운동 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도 그것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의 의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라크 사망 군인 어머니인 로즈 젤들은 미국의 신디 시핸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저는 얼마 전 그녀와 통화를 했는데 그녀가 저에게 ‘동지’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에게 ‘그럼 내가 혼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영국에서도 9월 24일에 반전 시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당 전당대회장을 포위할 생각입니다. 그 날 참가자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블레어는 곧 사임을 발표할 것입니다.

“저는 반자본주의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영감을 주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을 조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자본주의 운동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과업을 끝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의 영감·전투성을 노동계급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 ‘이윤보다 인간을’ 등의 반자본주의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팻말)를 노동자들이 들고 있을 때 흥분됩니다.

“우리가 반자본주의 운동의 전투성을 노동계급과 연결할 수 있다면 진짜 ‘다른 세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1. KTX여승무원노조 투쟁기금 모금
2. 청소년 간담회
3. 무료 어린이 놀이방
4. 전시회
5.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반전 콘서트

“전쟁과 혁명의 시대” 참가자들의 목소리

평소에 운동의 과제를 현장노동자들 사이에서 건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좌충우돌해 왔는데,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잘 설명해 줘서 커다란 영감을 얻었습니다.

성향아(비정규직 노동자)

학교측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노인들도 많이 왔는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가한 것이 좋았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재원(학생)

셔틀버스 운행 등 사람들이 편하게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현장에서 동료 노동자들이 이스라엘이 왜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지 물어 보는데, 이번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강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동석(현대차 노동자)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주제들에 대한 토론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전쟁과 혁명의 시대”를 통해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볼리비아나 유전자 문제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 수 있어 좋았어요. 앞으로 사회주의자들이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하림(청소년)

작년부터 ‘다함께’ 포럼에 가끔씩 참가했어요. 여러 단체 회원들이 참여해서 함께 토론해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전쟁 반대, FTA 반대 운동에도 항상 함께하고 싶어요.

꼬빌(이주노동자)

“전쟁과 혁명의 시대”에 처음 참가해 새로운 것을 많이 보았어요. 특히 내가 능동적으로 토론에 참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 여러 주제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풀 수 있었던 것이 이번에 얻은 가장 큰 성과였어요.

지용건(공무원 노동자)



2006 “전쟁과 혁명의 시대” 워크숍들

전쟁과 제국주의를 패퇴시키기



영국의 반전단체 ‘전쟁저지연합’의 전국 조직자인 크리스 나인햄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전쟁의 연관성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냉전 이후 미국은 만만찮은 경쟁자들의 성장에 직면했다. 유럽연합, 일본, 중국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다.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경제적 지위의 쇠퇴를 벌충하려는 것이 미국의 전쟁 드라이브의 핵심 동기다.”

그러나, 나인햄은 미국 지배자들의 이런 전략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라크에서 빠진 수령 때문에 미국은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반란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

은 이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도 어려울 것이다.

“물론, 확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동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란으로 확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의 강연(‘미국은 왜 이란을 공격하려 하는가’)은 미국의 이란 위협 배경을 좀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란의 석유 매장량은 막대하다. 그러나 1979년 이란 혁명 뒤 미국은 이란은 물론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한 통제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역설이게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뒤 이란의 영향력이 더 증대되고 있다.

한국 사회 대안과 전략 논쟁

‘IMF 이후 한국 경제 — 맑스주의적 분석’에서 정성진 연사는 한국 자본주의 분석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과 IMF 위기의 원인·대책 논쟁 등을 살펴보고, 재벌·투기자본·부동산·양극화·비정규직·한미FTA 등 현안들에 대한 맑스주의적 대안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 맑스주의적 분석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청중 토론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 NL-PD 논쟁의 합의, 국유화와 계획경제, 금융세계화론과 케인스주의의 관계 등을 둘러싼 토론이 있었다.

‘개혁인가 혁명인가 구분은 무의미해졌는가’에서 최일봉 연사는 19세기 말 독일의 수정주의(개량주의) 논쟁을 소개하고, ‘개혁인가 혁명인가’ 하는 물음은 혁명적 상황에서는 양자택일의 문제이고 지금 투쟁 방식을 둘러싼 문제라는 것과, 혁명가들이 개혁을 위한 투쟁의 최선두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중 토론에서는 대중의 의식이 투쟁 과정에서 바뀐다는 것, 경제 위기 때는 개혁조차 혁명적 방식으로 투쟁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 의식적인 개량주의자와 그를 따르는 대중을 구분하는 공동전선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 주장됐다.

‘5·31 지방선거 이후 민주노동당의 진로’에서 연사들(김선동·김종철·김인식)은 그 동안 당이 열우당과의 정치적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

방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당은 대중투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등에 동의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가 당의 패배인가 현상유지인가,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특히 영세 상공인·자영업자들을 견인할 것인가), 이른바 ‘상설연대체’(단일전선체)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다. 청중들도 이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단일전선체 — 공동전선인가 인민전선인가’에서 김하영 연사는 먼저 단일전선체가 단결에 대한 호소이고 우파의 재등장을 막아야 한다는 정당한 호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단일전선체가 과연 효과적인지 반문했다.

단일전선체의 ‘민족자주정부 수립’ 등 광범한 정치강령이 오히려 운동을 협소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단일전선체가 우파의 재등장을 막는 데서 열우당 등 지배계급 내 특정 분파와의 동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위험도 지적했다. 최일봉 연사는 운동의 단결과 전진을 위해 트로츠키의 공동전선 정신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과 변혁 전략’에서 김하영 연사는 미국의 세계적 차원 패권 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설

“미국의 네오콘들은 이란의 정권교체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 심지어 이를 위해 핵무기를 쓰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이라크 — 학살, 점령 그리고 저항’)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처한 곤경을 강조하면서도 그러한 위기 때문에 미국이 더 위험천만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수렁에 빠져 있다. 그러나 결코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이라크에서 억압을 강화하고 종파간 갈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란으로 확전해 판세를 뒤바꾸기 위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 베트남 전쟁 때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폭격을 확대했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잠시 협상 국면이 조성된 듯하지만, 이라크 전쟁 직전에도 그런 국면은 있었다. 미국은 이란 문제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이란 공격 반대 주장은 계속돼야 한다.”

많은 참가자들도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 위협,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사이에 커다란 연관이 있음을 지적했다.

9·24 국제 반전 행동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더욱 첨예해질 전투에서 반전 운동 세력의 힘을 강화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명하며 노무현의 동북아균형자론의 등장 배경, ‘한미동맹 재조정’의 배경을 강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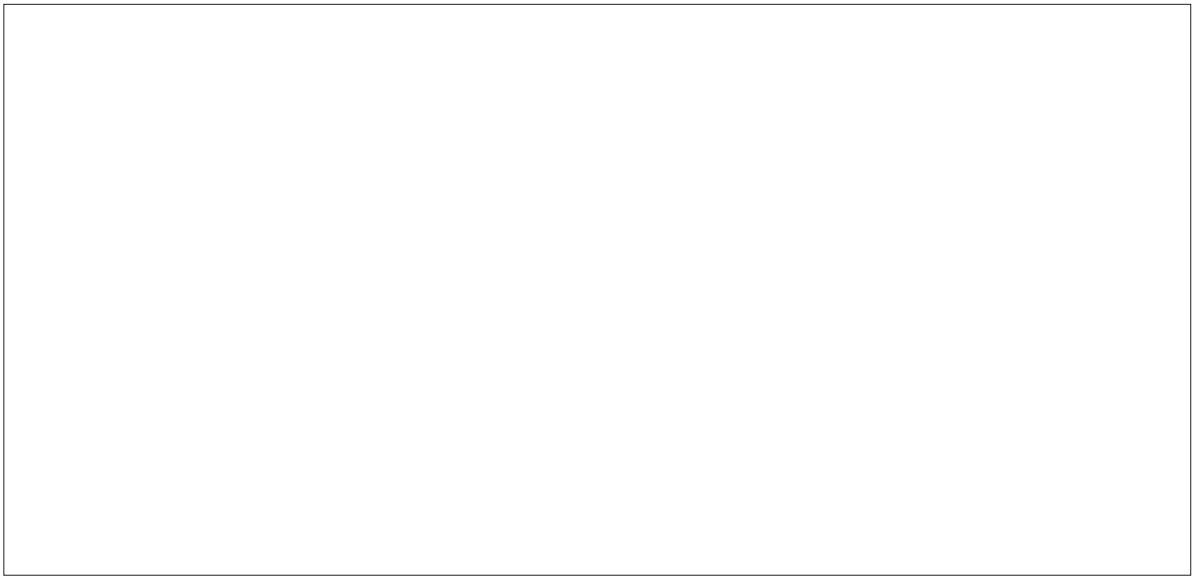
또, 전략적 유연성을 대북한용 또는 일국적 차원으로만 협소하게 이해하는 문제점들과 제국주의에 맞선 전략으로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협상이나 열강 간 세력균형에 의존하는 방식이 왜 위험한 전략인지도 토론했다. 아울러, 반제국주의 투쟁과 반자본주의 투쟁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결합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운동 위기의 실체와 대안’에서는 사회적 교섭, 산별노조, 노동귀족론, 민주노총 직선제, 노조관료 문제 등이 논쟁됐다. 전지윤 동지는 투쟁과 교섭 가운데 투쟁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를 비판하는 주장을 했고, 산별노조라는 조직 형식 속에 아래로부터 현장조합원의 투쟁과 연대라는 내용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워크숍에서는 현장조합원 운동·조직 건설과 함께 혁명적 정치와 조직 건설이 결합될 필요성이 강조됐고, 당장 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점거에 대한 전국적 연대 건설도 호소됐다.

이 밖에 ‘신자유주의와 저항’, ‘교육과 청소년학생운동’ 관련 워크숍 보고는 <빛> 인터넷판을 보십시오.

멕시코 재검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7월 16일 부정선거 항의 시위

7월 16일 멕시코에서 1백50만12백만 명이 참가한 시위가 벌어졌다. 멕시코 정치사에서 최대 규모 시위였다. 오전 9시부터 시위대가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을 가득 메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소칼로 광장은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치아파스에서 소노라까지 멕시코 전역의 3백 군데 이상에서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시위대는 주로 노동계급이었지만, 작가·학자·가수들과 1960년대부터 다양한 운동을 해 온 활동가들도 있었다.

이번 시위는 최근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했다. 많은 사람들이 빈민의 옹호자로 여기는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7월 2일 대선에서 아주 근소한 표 차로 패배했다. 멕시코 활동가들은 수많은 표가 “사라지는” 등 심각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다.

민주혁명당(PRD)의 후보인 오브라도르는 이번 시위가 평화적 시민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2주 동안 또 다른 행진을 벌이라고 호소했다.

시위대는 투표용지를 한 장씩 일일이 재검표할 것을 요구했다. 오브라도르는 시위 규모가 갑절로 늘기를 바라고 있다.

새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차리 호어 지음
김용욱 옮김
2,500원

맑스주의 경제학의 기초개념들
피터 그린 지음
최일봉 옮김
2,000원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박인규 지음
2,000원

지역 사회포럼 :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서울 남부지역 8월 23일(수) 저녁 8시 전교조 서울본부(7호선 이수역 7번 출구) 연사 : 김어진(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초구위원회 위원장) 문의 : 010-6495-9925 참가비 : 1천 원	서울 동부지역 8월 10일(목) 저녁 7시 30분 동부여성플라자 3층 회의실(건대입구역 6번 출구) 연사 : 김어진(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초구위원회 위원장) 문의 : 019-9731-7299 참가비 : 2천 원	서울 중부지역 8월 24일(목) 저녁 8시 명동향린교회(명동성당 앞 골목) 연사 : 정성진(맑스주의 경제학자, 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의 : 019-647-3309 참가비 : 2천 원
--	--	--

대학 맑스주의 포럼은 대학의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9월 포럼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의: 010-2752-2003, atgstudent@hanmail.net

<맞불> 창간 축하 메시지

공무원이 권력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고 노동자라고 선언하는 거리거리에서 항상 만나 다 함께 동지들의 손에는 언제나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동지들에게 연대의 정을 보냅니다.

노사관계로드맵과 한미FTA로 박탈당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피하지 않는 자세로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비정규직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이주노동자의 권리, 팔레스타인의 권리, 이라크인들의 권리 등 억압과 소외, 전쟁에 맞선 주장들을 주간으로 만나 볼 수 있어 정말이지 반갑습니다.

노동자·민중이 다 함께 맞서 지피는 맞불로 세상을 변혁합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맞불>을 정기 구독하십시오

짚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짚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계좌 번호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인터넷에서도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unterfire.or.kr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포스코 점거 투쟁을 방어하라

전지윤

7월 1일 파업에 돌입한 포항 건설노동자들에게 노무현 정부는 야만적 폭력과 테러를 쏟아 붓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포항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의 핏물에 젖어들고 있다.”

원청인 포스코에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묶여 있는 건설업체들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포스코를 향했다.

그러나 7월 11일 ‘성실 교섭 보장’을 약속했던 포스코는 이를 만에 약속을 깨고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했다.

분노가 폭발한 노동자들 3천여 명은 7월 13일부터 포항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자 경찰과 포스코는 단전·단수를 하고 음식물과 물 반입도 저지하고 심지어 에어컨과 환풍기 가동마저 중지시켰다. 평생 막노동을 하며 온갖 골병을 얻은 고령의 노동자들을 굶주림과 목마름, 찜통더위 속에서 고사시키려 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경찰청장 이택순의 진두지휘 아래 무려 2백40개 중대 2만 5천 명의 경찰 병력을 포항으로 집결시켰고, 69개 중대 7천 명의 병력으로 포스코를 에워싸고 있고, 6백 명의 경찰특공대도 대기시키고 있다. 포항건설노조 지도부 전원에게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하루라도 복용 안 하면 불상사가 날 수 있는 혈압과 당뇨 약 등의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월 15일에는 농성 중이던 한 노동자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7월 16일에는 심장병을 앓던 한 노동자가 호흡곤란과 심장발작을 일으켰다.

경찰은 가족들이 전달한 음식물과 식수를 자기들이 먹거나 버려 버렸고 가족들 1백50명마저 폭력 연행했다. 광양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연대를 위해 달려오자 고속도로를 봉쇄하고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하중근을 살려내라!

이 위험천만한 작전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 지휘관들은 직접 방패를 들고 내리찍는 시늉을 보이며 폭력을 독려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살인적 폭력은 7월 16일 열린 경찰력 투입 규탄 집회에서 절정에 달했다. 2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모인 이 집회에서 경찰은 최루액을 쏘며 방패로 찌는 등 전쟁을 방불케하는 폭력을 자행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머리와 손가락이 짓이겨지고 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기는 중상을 입었다. 무엇보다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씨는 경찰 방패에 두개골이 으스러져 수술에 들어갔지만 사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하중근 씨는 두차례의 대수술에도 뇌출혈과 뇌부종이 계속돼 두개골을 열어둔 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들은 ‘국가신인도 하락’을 들먹이며 ‘신속 진압’을 외치고 있고, 노무현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엄정 대처’를 선포하며 화답했다.

정말이지 노무현 정부와 노동자 민중 사이에는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차별받고 억눌린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포스코 점거처럼 해 보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아 온 건설노동자들

건설노동자들이 처한 인간 이하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지난해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때 이미 드러났다. 포스코 하청업체 건설노동자들은 포스코 정규직의 35퍼센트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식당·화장실·휴게실도 없이 일해 왔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포스코 – 포스코건설 – 건설업체 – 십장 – 팀장 – 노동자로 이어지는 불법 다단계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이용해 포스코는 지난해 무려 5조 9천여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것은 3년 사이에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주5일제 실시를 요구하자 건설업체는 조합원 명단을 요구했고, 명단을 받자 전부 해고해 버렸다. 또, 토요일 무급의 주5일제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월급 60만 원 삭감안

이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제3자’를 자처하는 포스코가 있다.

포스코는 명백한 ‘직접 당사자’이고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제1의 적이다.

영웅적 결사항전

노무현 정부의 야수적 탄압 속에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저항이 빛나고 있다. “이탈자가 늘고 있다”는 언론의 거짓말과 달리 현재 포스코 건물에는 2천5백 명의 노동자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는 결의로 싸우고 있다. 의약품 반입을 금지한 것 때문에 지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 2백여 명이 불가피하게 내려왔을 뿐이다. 오랜 노동 속에 온갖 설움을 당해 온 고령의 노동자들은 놀라운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전기·토목 기술자들인 노동자들이 설치한 바리케이드 때문에 경찰은 연휴가 끝나도록 진압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뜨거운 물과 가스통을 이용해 위력적인 방어 무기를 만들어나가기도 했다.

가족들의 분노와 투지도 만만치 않다. 7월 17일에는 가족 4백 명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도시락 전달을 요구해 결국 전달시켰다.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8백여 명과 전남동부·경남서부 건설노조 노동자 1천3백여 명도 포항으로 결집해 적들의 배후를 노리고 있다.

이런 투쟁의 결과로 포스코는 하루 1백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고 지배자들은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포항 건설노동자들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나머지 투쟁들이 전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투쟁에 대한 전국적인 연대가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전국집중집회를 7월 22일로 멀찍이 잡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래로부터 압력 때문에 몇일 앞당긴 것이지만 말이다.

노무현이 전국의 경찰력을 모두 포항으로 집결하고 단호하게 진압을 밀어붙이듯이 우리도 힘을 집중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전국 집중 연대가 시급하다

지금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포스코 점거 투쟁은 전국적인 투쟁 전선의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노무현은 전국 2만 5천 명의 경찰병력을 포항에 집결시키며 이것을 소멸시키려 애쓰고 있다. 물난리 속에 50여 명이 사망·실종된 상황에서 수해복구가 아니라 노동자를 짓밟는 데 열심인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은 “노동계 하루가 심

상치 않다”며 자동차 4사의 파업과 포항 건설노동자 투쟁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 4사가 모두 부분 파업 등에 들어갔고, 특히 대우차는 2001년 패배 이후 최초로 파업에 나섰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KTX 등 비정규직·장기 투쟁 작업장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고, 특히 현대차 전주 공장 비정규직 지회는 전면(총력)파업에 들어가 있다.